

## 멕시코 마리화나 (Marihuana) 합법화 움직임 분석 (42)

### 차례

- I. 서론(序論)
- II. 멕시코 향정신성 물질의 역사적 배경
- III. 관련 법령(法令)
- IV. 향정신성 물질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들
- V. 향정신성 물질의 멕시코 국내 합법화 찬성측 입장
- VI. 향정신성 물질의 멕시코 국내 합법화 반대측 주장
- VII. 멕시코 현재 국내외 정치 사회적 상황과 결론

### I. 서론(序論)



한국등 동양권에서 멕시코를 신문 및 인터넷 뉴스로만 접한 사람들의 경우, 멕시코를 아주 위험한 나라, 한낮 길거리에서 총싸움을 하고,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뜨거운 햇볕아래에서 어슬렁 어슬렁 지나 다니고, 어두운 골목에서 마약등을 파는 험한 나라로서 인식을 대부분이 하고 있다.

물론, 멕시코에서의 짧지 않은 13 년동안의 이민 경험상, 한국과 비교한다면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외부에서 느끼는것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범죄 사건 발생 경우, 통계상 이해관계가 얹힌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테피토 (Tepito)등과 같이 특정 범죄 우발지역이 존재하고, 설령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한국분들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짝통 물품등을 포함한 재래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본인도 UNAM 대학교 가난한 고학생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십차례 방문 (?)을 한 사례를 토대로 하였을 때), 마약사업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 (?)을 하지 않은 이상 범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수있다.

현재의 글은 멕시코의 현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진보 혹은 우익 언론들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피상적(皮相的)으로 쓰여진 글을 바로잡고자 (물론, 대부분이 일부 멕시코 언론의 단순 번역에 불과하지만), 본인보다 많이 알고 있는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쓰고자 함이며, 글의 순서는 멕시코 향정신성 물질의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현재를 알게끔, 지루하게 역사적인 차례를 쓰려다가 본인을 포함 독자들이 싫어할것 같은 느낌에 간단한 시대적 서술을 하였으며, 향정신성 물질 관련 현재 멕시코의 시행중인 법령 및 법적 효력 발휘되고 있는 멕시코 가입 국제 조약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보았고,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2013 년 8 월 현재 향정신성 물질 합법화가 이루어진 아메리카 대륙 몇몇 국가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으며, 수차례 언급된 마리화나와 같은 향정신성 물질 합법화 찬성하는 멕시코 여론 및 찬성 옹호의 대표 주자중 한사람인 전임 대통령 비센테 폭스 (Vicente Fox)의 언론 및 기자 회견 자료를 한번 되짚어 보았고, 멕시코 제도 혁명당 (PRI) 소속 대통령 페냐 니에토 (Pena Nieto)로 대표되는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로 한다.

끝으로는 멕시코 국내외 정치 사회적 현 상황을 알아보고 한국을 사랑하는 재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인의 주관적 생각 및 염원을 개진(開陳)하여 보는것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참고로, 띄어쓰기등과 같은 많은 문법의 오류가 다분히 있을 예정이니 양해를 미리 구하고자 한다).